잊혀진 佛母 발굴해 낸 '미술 평론 대부'



윤범모 관장은…1951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1977년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 · 박사를 마쳤다. 1984~1986년 호암갤러리 큐레이터, 1993~1999년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1994~2016년 가천대 교수, 2007~2009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2011~2015년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장, 2012~2016년 고암미술문화재단 이사,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큐레이터, 2015년 박수근미술상 운영위원장, 2016년 한국민화센터 이사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 2017~2019년 동국대 석좌교수, 2018년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을 거쳐 2019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8년 〈시와 시학〉 신춘문예 등단했으며, 저서 〈한국현대미술 100년〉〈평양미술기행〉〈한국근대미술〉〈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한국미술론〉〈백년을 그리다—김병기〉, 시집 〈노을 씨, 안녕〉 〈토함산 석굴암〉 등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테마人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2월 25일 국립현대미술관장 재임명
미술한류 등 '새로운 3년 비전' 제시
2005년 〈불교평론〉 발표 논문 통해
한국불교미술의 창조성 부재 지적해
"한류, 이제는 순수예술로 이어져야"

대담=김주일 국장 · 정리=박재완 기자

"미술로 감동과 영감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미술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재임명된 윤범모 관장의 '새로운 3년 비전'이다. 국립미술관의 관장으로서 이 시대에 제시할 수 있는 비전으로 이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 이 사회가 미술의 힘으로 감동과 영감을 받아 지속되는 사회가 된다면, 즉 문화의 가치가 사회의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훨씬 긍정적인 사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평소 "한국미술의 역사 절반이 불교미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불교미술과 불교를 모르면 우리 문화의 전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윤 관장이기에 그가 제시하는 비전의 전모에 관심이 모인다. 윤 관장의 비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의 비전속 '미술'에 오늘날의 불교미술과 불교의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의 지론 속 '불교미술과 불교'의 시제가 '과거형'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그의 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현대미술관장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예술문화의 방향성에 깊게 관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 중의 하나다. 우리 예술 · 문화의 근간에 불교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윤 관장이기에 그의 '앞으로 3년'이 불자들에게는 '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윤범모 관장을 만났다.

한국불교미술의 미래를 묻다

"장르는 얼마든지 나눌 수는 있는데, 하여튼 생활 속에 함께 어우러지는 미술이 되어야합니다.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생활 속에서 같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되어야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박제된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은 예상대로였다. 윤 관장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불교미술'과 '불교'는 최소한 '한국의 미술'이라는 영역에서는 '과거형'에 가까웠다. '근간'이었던 것이 이제는 전 방위적으로 쓰이지 않는 모티브이고 오브제가 되었다. '불교미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불사'라는 의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불교적 소재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술이나 예술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미술'이라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의 불교미술과 불교의 총량은 미미한 것이다. 불보살의 상호를 그려내는 것만으로 '미술'이라는 커다란 스팩트럼 속의 한 색깔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 형식과 내용이 신라, 고려, 조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는 것이다.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된 불교미술이 오늘날의 우리 현대미술의 근간이 되기 위해선 불교미술과 불교가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제인 것이다.

"미술과 예술이라는 말 자체에는 창의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건축을 하던 불상을 새기든 불화를 그리든 넓게 보면 모두 미술 활동인데, '불사'라는 의미에 갇혀 신라 · 고려시대 작업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신라시대의 미술은 신라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미술이기 때문에 '신라미술'이라 부르고 당시에는 당당히 '미술'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서 '미술'로 불리려면 이 시대의 생각과 정신이 반영된 미술이어야 하는 것이죠."

윤 관장은 2005년 불교평론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불교미술의 창조성 부재'를 이야기한 바 있다. 윤 관장은 한국불교미술이 한국현대미술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선 사부대중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라시대에 '미술'이었던 것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도 지금은 미술이 아닌, '불사'로 불리는 것은 현대화 내지는 동시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는 사부대중의 생각이 '신라'에 멈춰있다는 것이다. 불교 안에 살고 있는 사부대중이 그 시대를 건너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관장이 새롭게 제시한 3년의 비전은 크게 4가지이다. △확장과 연결 △미술한류 △생태미술관 △디지털혁신이다. 그 4가지 비전 중에서 '미술한류'가 불교미술의 미래와 연결된다.

"전시나 출판, 교육 등 미술관 고유 업무로 연결해서 우리 문화를 튼튼히 하는 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K-pop 등 대중문화가 한류를 이루었다면 이제 순수예술이 그 뒤를 이어가야죠. 미술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 한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올해를 원년을 삼으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우리 현대미술 특별전이 여러 군데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관장이 이야기하는 '미술 한류'에 한국불교미술이 함께할 수 있을까. 한국의 미술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못한 상황에서 '미술 한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 윤 관장은 우선 국제시장에서 우리 미술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 노력에는 우리 전통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채색전통'이다. 그리고 그 채색전통의 중심에는 불교미술이 등장한다.

"우리 민족이 원색을 좋아해요. 건축(단청)만 봐도 알 수 있죠. 완전 오방색 중심으로 쓰잖아요. 그 채색문화를 다시 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고려와 조선시대 불화 궁중회화 이른바 민화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해왔던 '채색'을 다시 연구하고 재조명해 부활시키면 우리만의 독자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우리 미술에 대한 정체성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2면에 계속

INSIDE

C5
기획연재
정찬주 소설 '아쇼까 대왕'

C10~11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화보

C15
기획연재
김선희 '변상도 바로 읽기'